

의대정원 100명·대학병원 500병상...“동·서부 고루 혜택”

의대 신설 확장...30년 숙원론 전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23일 확정함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은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 정원을 10년 한정해 증원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뒤에는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 가운데 100명을 확보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다. 양 지역에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 의대 없는 전남 우선 대상=당정은 매년 늘어나는 400명의 정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서 5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상당한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

매년 400명 중 300명 지역 의사

2022학년도부터 전형 모집

“상급 의료서비스 불편 해소

도민 건강 높이는 전환점” 환영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정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일률적으로 몇 명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지자체 협조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배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30년 숙원론 전남도 “환영”...다만 동부와 서부 혜택 가도록 건의=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계획 정부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의과 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그동안 우리 지역은 의료 취약지가 많고 의료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의대가 없어 상

급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신 시설의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도민의 건강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지사와 서위원장은 “의대 설립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도내 의과대학이 지역 의료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꾸준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0명의 인원을 확보해 동부와 서부에 나누는 방향, 의대와 병원을 분리하는 방향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990년 정부에 의대 신설을 처음 건의한 지 30년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 민선 7기 들어 2020년 핵심사업으로 의대 유치를 정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주요했다.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은 지난 1990년 10월 시작됐다. 당시 목포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목포대 의과대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유치운동도 불이 붙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이를 공약했으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정원 100명(학년)의 의과대학 개교와 500병상을 갖춘 대학병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재는 도농의료 격차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와 불편, 정주 여건 악화, 자본 역외 유출 등을 불러와 전남을 더욱 낙후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전남 도약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3일 광주시 북구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노무현길 표지석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무현길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무등산에 올랐던 길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젊은이들에 희망 주는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

광주 찾은 김부겸 민주당 당권주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당내 경선을 통해 한국사회에 다시 무너져 가는 연대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이지만, 앞으로 접근해야 할 한국 사회의 많은 모순, 질곡, 불의 등과 싸워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 무등산에 조성된 ‘노무현길’을 찾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고 당내 경선에서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을 새겼다. 그는 노무현길을 찾은 이유에 대해 “불의와 반칙에 용서 없던 사자 같은 사람 노무현을 기리고,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등산을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을 되새기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했다.

무등산 ‘노무현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무등산에 올랐던 길을, 시민의 제안에 의해 2011년 광주시 고시로 ‘무등산 노무현 길’로 지정됐다.

김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향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기 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40대 이

“지역주의는 암덩어리

미래세대가 끌어내도록 해야”

“특별법 통해 행정수도 이전”

하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는 정치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 정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이 보장된 경기 군포 선거구를 과감히 떠나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해 낙선했고, 이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는 등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차례의 낙선을 딛고 대구의 중심인 수성구(갑)에서 62.3%라는 민주당 후보 중 전국 2위의 높은 득표율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31년 만에, 소선거구제하에서는 45년 만에 최초의 패거였다.

그는 “지역주의는 일종의 암덩어리다. 보통 때는 숨기도 하다가 결정적일 때 살아난다”면서 “이제는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미래 세대가 이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여권 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전면적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지만, 여야가 새롭게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폭등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들도 서울이라는 곳에 국가 기능이 모두 몰려있으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구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지방도 어떻게든 살 길을 타줘야 한다는 여론이 긍정적 신호로 바뀌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강력한 세제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와 1인 가구·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고밀도 건축 공급 방안 등을 한데 엮으면 기본적으로는 단기간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 전 의원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서울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

靑 다주택처분 시한 압박...인사교체 맞물려 ‘축각’

김조원 민정수석 거취 관심집중

부동산과 관계없는 인사 관측도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어진 ‘1채 제외 처분’ 시한이 성큼 다가왔다.

이달 31일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으로, 청와대에서는 시한을 전후해 어떤 방식으로든 다주택 처분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 비서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들의 ‘주택정리’ 여부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12명의 다주택 참모 가운데 ‘1채 제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참모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교체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거취에 쏠린 관심도 부동산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22일 김 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이 교체 배경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날 ‘김 수석’이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에는 반대로 교체 가능성이 작아지고 오히려 유임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몇 채의 아파트를 가졌느냐에 따라 유임이나 교체냐를 점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시각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참모 인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잣대로 삼지는 않으리라는 반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정수석 교체 여부도 부동산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개혁 등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최선의 카드가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이 교체된다면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의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교체검토 대상으로 알려진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부동산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 강 수석의 경우 청와대에서 일한 지 1년 6개월이 남았고 21대 국회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창구인 정무라인의 역할을 배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사 요인으로 꼽힌다. 후임 정무수석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